

인천 손은 藥손 의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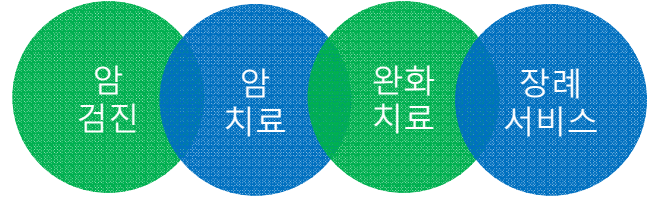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국가 5대암 + 폐암 1인 500만원 한도

의료비(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

행복인천 암 관리 통합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 인천의료원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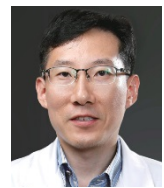
세부 문의 |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 032-580-6001~2

간경화,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나요?

일반적으로 간 경화는 간이 딱딱해져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간 경화는 간염, 술, 약물 등으로 인해 간에 만성적 염증 발생하고, 간 세포가 점차 섬유화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 경화의 증상은 간염과 매우 비슷합니다. 피로감과 황달, 복수 등이 발생하며, 다리가 붓고 피부가 붉게 보이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엔 호르몬 장애가 생겨 유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구역·구토도 동반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경화 원인은 술입니다. B형, C형 간염으로도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매일 먹는 술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무시하고 먹는다면 무리가 생기고 간 경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B형, C형 간염이 장기화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황달, 복수 등이 대부분입니다. 심한 경우엔 식도 내 정맥압이 올라가 피를 토할 수도 있고 매우 심한 경우엔 간 해독 능력이 없어져 의식을 잃는 일도 발생합니다. 간 경화의 진단은 혈액검사가 가장 우선하게

인천광역시의료원 소화기내과장

박병준



됩니다. 간 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는 빈혈, 혈소판 수치가 적어 추정이 가능하고 초음파 또는 C.T.를 보면 변형이 생겨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수가 차거나 식도 정맥 출혈 등의 합병증이 온 심각한 경우엔 합병증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경화의 경우엔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고, 심각한 환자 중 완치가 되려면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 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독 능력이 떨어진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주'가 필수입니다. 저염식, 저단백질식도 환자 회복에 좋은 방법이지만 간에 좋다는 정체불명의 약들은 환자 해독능력의 문제가 있기에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 확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간 경화가 걸린 환자가 주변에 계시다면 반드시 금주가 필수적이며 B형, C형 간염에 걸린 환자도 의료진과의 꾸준한 경과 관찰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